

DAY 47 · 5부 안을 들여다보기

단어 하나가 어디를 쳐다보면 뜻이 잡힐까? — 어텐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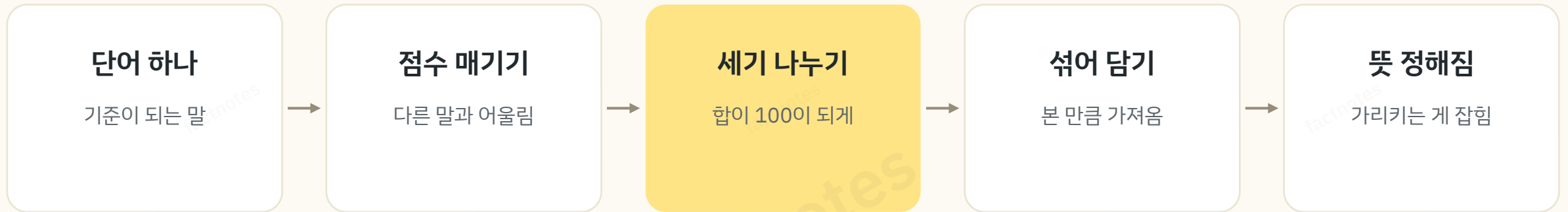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23일

어텐션은 정해진 시선을 나눠 갖는 일이야. 어디에 몰아주느냐가 곧 뜻이 되고.

한 줄로 말하면

- 1 어텐션은 문장 속 단어가 **다른 단어를 얼마나 세게 쳐다볼지** 정하는 계산이야.
- 2 시선은 무한정 늘어나지 않아. **합이 정해진 시선을 나눠 갖는** 거라, 한쪽을 세게 보면 다른 쪽은 약해져.
- 3 그래서 뜻이 정해져. 어울리는 단어에 시선이 몰리면 **'그것'이 누구를 가리키는지**가 잡히거든.

시선이 정해지는 네 걸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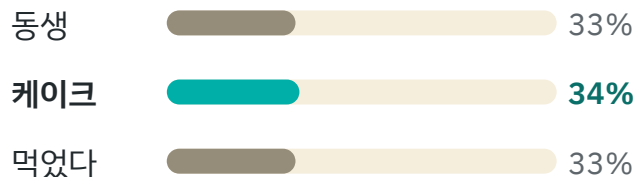
세 번째 칸이 중요해.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합이 정해진 몫으로 바꾸기 때문에, 한 단어를 세게 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약해져.

핵심: 시선은 나눠 갖는 것 — 한쪽이 세지면 다른 쪽이 약해진다

시선 세기를 손잡이로 돌려 보기

0 — 모든 단어를 똑같이 본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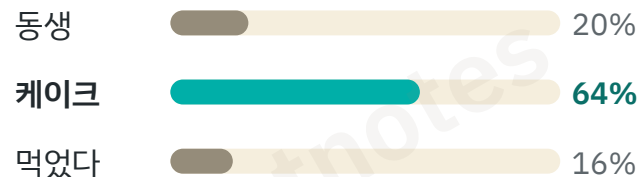
'동생이 케이크를 먹었다. 그것은 달았...'



고르게 보면 아무것도 못 정해. 시선이 퍼져 있으면 '그것'의 뜻도 흐릿한 채로 남아.

50 — 어울리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

'동생이 케이크를 먹었다. 그것은 달았...'



'달았다'와 어울리는 건 동생이 아니라 케이크지. 시선이 그쪽으로 기울면서 뜻이 잡히기 시작해.

100 — 한 곳만 본다

'동생이 케이크를 먹었다. 그것은 달았...'



여기선 케이크가 확실해서 몰아 봐도 돼. 다만 몰아 볼수록 다른 단서는 아예 안 보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 뒤.

손잡이를 올릴수록 한 단어에 시선이 몰려. 0이면 모두를 똑같이 보고, 100이면 한 곳만 봐. 막대는 그 단어가 받는 시선..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47/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어텐션이 하는 일을 한 줄로 말하면?

- ①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다
- ②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얼마나 세게 볼지 정한다
- ③ 문장을 짧게 줄인다
- ④ 맞춤법을 고친다

Q2 '그것은 달았다'가 '그것은 배불렀다'로 바뀌면?

- ① 문장이 더 짧아진다
- ②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
- ③ 시선이 케이크에서 동생 쪽으로 옮겨 간다
- ④ 시선이 고르게 퍼진다

Q3 한 단어를 아주 세게 보면 나머지는?

- ① 사라졌다 돌아온다
- ② 똑같이 세진다
- ③ 두 배가 된다
- ④ 뭉이 줄어든다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②

어울리는 정도로 점수를 매기고, 그 점수를 시선의 몫으로 바꿔. 그 몫이 곧 '얼마나 세게 보느냐'야.

Q2

③

달 수 있는 건 케이크, 배부를 수 있는 건 동생이지. 단어 하나가 바뀌면 어울림 점수가 바뀌고, 시선이 통째로 옮겨 가.

Q3

④

시선의 합은 정해져 있어서 나눠 가져. 한쪽에 몰아주면 나머지 몫은 자동으로 줄어들고, 그래서 놓치는 단서도 생겨.

**어텐션은 정해진 시선을 나눠 갖는 일이야.
어디에 몰아주느냐가 곧 뜻이 되고.**



내일은 뜻을 숫자로 — 단어를 숫자 묶음으로 바꾸면 비슷한 뜻끼리 가까워져.